

□ 연구 논문

기독교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배은주(성결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 연구원)

전요섭(성결대학교 · 교수)

I. 여는 글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설적인 삶을 살아 가정, 사회, 국가에 이바지할 일꾼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은 그들 스스로 내·외부적인 문제와 혼란에 사로잡혀 있는 불안정한 존재이다. 그들이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겪는 변화는 매우 크고 급격하게 다가와 그들을 내부적으로는 불안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며, 외부적으로는 방향과 무질서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키게 된다. 풍전등화와 같은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길은 그들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현 시대는 오히려 청소년들을 혼란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실정이다. 끊임없는 전쟁, 살인, 폭력, 원조교제 등은 청소년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린다. 또 TV, 영화, 음악, 인터넷 등을 통해 전해지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정보를 자극에 민감한 청소년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됨으로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자극하는 요

인이 되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2001년도 학교폭력실태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언어·신체 폭력이 위험수위에 있다는 보도와 함께 폭력 가해의 원인이 비행친구, 음란, 폭력매체 탐닉, 공부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나타났다.¹⁾ 이는 오히려 길거리보다 학교가 더 위험하고 학교 안에서부터 특별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²⁾ 이처럼 현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공격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들은 학교 밖에서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이들이 자라서 사회에 여과 없이 배출될 때 이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외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책임을 지킬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가치기준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공격성과는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알아봄으로 신앙을 통한 자기 수양과 성찰을 통해 불안정과 불균형적인 청소년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주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신앙이 청소년의 가치 체계와 신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공격성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그래서 신앙별로 나타나는 공격성의 차이를 살펴보고, 더욱이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른 청소년의 공격성과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 하위요인간에 나타나는 상관관계를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기독교적 정체성 형성이 청소년의 가치 성립과 성숙한 인격 확립에 의미있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기독교 신앙의 이해

1) 기독교 신앙의 개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 기초하여 창조

주 되시며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심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다. 다시 말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면서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해결책을 갖고 계시며 인간이 하나님의 이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 인간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셨다. 더불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과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 또한 죽음 후에는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인간은 불확실하고 일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충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완전한 삶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³⁾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독교 신앙을 형성하는 많은 신앙적 요소들(Christian affiliations) 중에 일부인 주일예배 참석, 성경, 기도, 봉사, 세례, 구원의 확신,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을 기독교 신앙을 성숙시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정의하였다.⁴⁾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요소를 통해 인간에게 발생하는 비신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료하며, 개인의 신앙을 성장시킴으로 문제 극복과 신앙을 통한 인간 성숙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⁵⁾

2) 청소년의 기독교 신앙

청소년은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정서적 불안과 갈등, 사회적 역할의 변화로 인해 혼란을 겪는 과도기(transitional period)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G. S. Hall은 이 시기를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a time storm and stress)라고 지칭하였다.⁶⁾ 특히 내부적으로 느끼는 불안과 혼란은 갑작스런 신체의 성장이라는 상황

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상태가 행동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을 아는 것은 청소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신체는 급성장하였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한 상태인 청소년기에 있는 이들을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울 때는 먼저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이라 하겠다. 더욱이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과 함께 영적 발달도 변화하는 시기로 기존에 아동기에서 가졌던 신앙의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 아동기의 신앙이 무비판적으로 성실하게 수용하는 신앙이라면 청소년기에는 신앙과 종교적 생활에 대해 예리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기 시작한다. 그리하여 신앙에 의심과 회의를 품고 신앙의 궁극적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려고 하는 반면, 인생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구체화시키면서 신앙 또한 심화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 신앙의 발달단계이론을 연구한 James W. Fowler는 청소년기의 신앙을 비분석적-관습적 신앙(synthetic-conventional faith)의 단계로 설명한다. Fowler에 따르면 이 단계는 제 3단계인 순응(conformist)의 단계로 인간 관계의 경험을 확장시킴으로써 가치와 힘에 대한 이미지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는 자신에 대한 주위의 친구들과 부모 등 의미 있는 타인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이 자아 존중감 형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⁷⁾ 그러나 의미 있는 타인들의 기대와 판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자신만의 독립적인 관점을 형성하거나 주체성과 자율적 판단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단계라는 해석이다.⁸⁾ 이처럼 자아정체감과 주체성이 온전히 성숙되지 못한 청소년이 실제적으로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신앙에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반대로 미래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방향이 신앙의 바탕 위에 서게 되면 인격적인 신앙과 믿음의 자세로 지속적이며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에게 기독교 신앙의 근거를 명확하게 심어주고 그들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올바른 자아상을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 안에서 바르게 인

도해야 할 것이다.

2. 공격성의 이해

1) 공격성의 개념

공격성의 뜻을 가진 ‘aggression’은 다른 생명체에게 상해를 주거나 파괴하려는 의미를 내포한다.⁹⁾ 즉, 부상이나 피해입는 것을 원치 않는 개체 혹은 사람을 해치거나 고통을 주기 위해 이루어지는 물리적 및 언어적 행동을 포함한 행동 또는 행동경향을 공격성으로 정의하는 것이다.¹⁰⁾ 하지만 대체적으로 공격성을 정의할 때 다음의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째, 공격성을 결과적으로 관찰 할 수 있는 특성 및 그 행동의 효과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방법과 둘째, 반응자의 특성 및 공격자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나 동기까지 포함시켜 정의하는 방법이 있다.¹¹⁾ 전자의 경우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히게 되어도 공격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오류를 낳게 된다. 즉, 공격적인 의도가 없이 우연히 발생된 상황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관찰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는 한계점을 가지게 된다. 반면 후자는 전자의 내용을 포함하고 공격자의 의도까지도 공격성으로 보기 때문에 전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즉 공격성을 타인에게 유해한 자극을 주는 의도나 동기를 포함하여 그 행동까지를 모두 공격행동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Ernest R. Hilgard**는 타인에게 신체적, 언어적으로 손상을 주거나 재산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행동이라고 정의하였다.¹²⁾ 또 **Albert Bandura**는 사람을 상처 내어 상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면서 상해를 신체적인 것에서 심리적인 의도까지 포함하였다. 이상의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공격성은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거나 주고자 하는 공격적인 의도까지를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성경적 관점에서는 공격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보기 위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을 통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공격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사탄의 계략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된다. 인간의 타락 이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한 가인이다. 그는 아담과 하와의 장남이었고 아벨이라는 남동생이 있었다. 세월이 흘러 그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나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가인의 제사는 거절하였다. 그러자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에서 심히 분(angry)하여 안색이 변하였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극한 분노를 품어 시기, 원망, 질투로 동생을 살해한다. 또 죽은 동생을 찾는 하나님께 노(怒)함으로 반박한다.¹³⁾ 가인의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며 그 분노로 인해 동생을 미워하여 살해함으로 그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동생은 그 희생양이 된 것이다. 가인이 동생을 살해한 장면이 영어로는 ‘attacked’와 ‘killed’로 묘사되는데, 이것은 가인이 자신의 제사가 거절당한 것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되었고 부적절한 반응을 함으로 동생을 아무도 없는 곳으로 불러내어 공격하고 죽였다는 것이다. 가인은 분노, 미움, 질투로 동생을 공격하였고 그러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표출하여 결국 동생을 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를 밖으로 불러내어 죽였다. 그러므로 가인은 동생을 미워함으로 이미 그를 마음 속에서 한 번 죽였고 실제로 그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냄으로 동생을 두 번 죽인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길 분노를 억제하고 화해하고 용서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은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께 거절당하자 기대가 충족되지 못함으로 인해 좌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한 결과, 죄를 짓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방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공격성은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를 품는 것, 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며 이것을 표출함으로 죄가 된다는 것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인간의 공격성을 여실히 나타내는 것으로써 골육지친을 살인하는 극악무도(極惡無道)함을 보여 주었다.

이는 타인을 미워하며 공격하고 살인하는 것은 죄이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악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2) 공격성의 원인

공격성을 인간의 본능에서 나오는 충동이론(triebtheorie)으로 해석하려는 Sigmund Freud의 정신분석학적 이론과 Konrad Lorenz의 동물행동학적 이론 그리고 욕구의 좌절에서 기인한다는 J. Dollard의 욕구좌절 이론, 관찰과 모방을 통해 습득된 것이라는 Bandura의 사회학습 이론이 그것이다. 위의 내용을 살펴 본 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각 이론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정신분석학적 이론

정신분석학적 이론에서는 인간에게는 생명을 종식시키며 폭력과 파괴의 근원이 되는 죽음본능(thanatos)과 생존을 지속하고자 하는 삶의 본능(eros)이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욕구(two basic drives)가 있다고 보았다.¹⁵⁾ 이 중 죽음본능에서 나오는 에너지인 공격성은 이것이 내부로 흐르게 되면 자학적이거나 자기파괴로 나타나게 되고 외부로 흐르게 되면 타인을 파괴시키고자 하는 욕구로 나타나게 된다고 본 것이다.¹⁶⁾

반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 Freud의 정신분석학은 Charles Darwin의 진화론에 근거한 것이므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창조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Freud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시인들이 자연의 재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 낸 것으로 문명에 뒤떨어지며 유아적인 발상이라고 하였다.¹⁷⁾ 또한 종교를 강박적인 신경증으로 인식하고 현대인에게는 유치하며 해로운 것으로써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는 집단 망상이나 집단 신경증이고 교회는 잘못된 초자아(super ego)를 강조하여 사람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집단으로 보았다.¹⁸⁾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며 사람에게 정신질환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이 인간은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존재가 아니라 어떠한 종류의 정신질환도 치유하시는 유일한 치료법이 되시는 분이시다.¹⁹⁾ 또 죽음본능과 삶의 본능은 폭력과 부도덕을 자연스럽게 인정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떠나 폭력, 부도덕이 난무하던 타락의 성(城)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심으로 인간의 헛된 힘과 부도덕을 용납하지 않으셨다.²⁰⁾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에서 이같은 이론을 수용하여 협력하고 융합하는 것은 성경과 기독교상담 사역의 권위를 하락시키는 것이며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예서와 같이 되는 것이다.²¹⁾

(2) 동물행동학적 이론

공격성을 동물행동학적 측면에서 다룬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는 Lorenz이다. 그는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공격성을 인간에게 적용시켰는데 즉, Lorenz는 자신의 저서 *on Aggression*에서 동물이 나타내는 다양한 공격성을 여러 종에 걸쳐 관찰하고 실험한 연구결과를 통해 인간의 공격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의학 부분에서 노벨상을 수상하며 개인과 종의 생명보존을 위한 공격의 본질적인 역할을 증명하였다.²²⁾ 그에 따르면 공격성을 일종의 투쟁 본능으로 보고 생존 및 종족 유지에 필요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동물행동학에서는 인간도 동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인간의 공격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동물의 공격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Lorenz는 공격은 인간이나 동물에 있어서 본능적인 것이며, 공격행동의 근본적인 목적은 충분한 양의 물과 음식,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Lorenz의 이론은 동물에 대한 연구를 인간에게 무리하게 적용하여 인간과 동물을 같은 관점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인간의 인지 및 학습능력을 과소 평가하여 지나치게 동물적 본능에 치우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²³⁾ 또한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히 동물적 본능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갖도록 창조하셨다.²⁴⁾ 그러므로 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증기통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감정에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기계가 아

나라 생명력이 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증기통 속의 가스처럼 가끔씩 분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억압, 분노 등의 감정은 상황에 대한 개인적 반응일 뿐이며 상황이 중지되면 분노 또한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증기통의 원리대로 가끔씩 분노를 터뜨리고 공격적 행동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에게 조절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하시키는 것이 된다.²⁵⁾ 분노, 억압 등의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비정상적으로 폭발하게 되면 타인과 심각한 부조화를 일으키고 죄책감에 휩싸이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긍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²⁶⁾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만물을 맡아 다스리는 창지기의 역할로 창조된 인간을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험결과에 적용시킨 것은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질서에 위배되는 것임으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3) 욕구좌절 이론

욕구좌절 이론은 Dollard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Dollard의 이론은 Freud의 영향을 받았으나 공격성을 정신분석학에서 말하는 성적 행동이나 생존 또는 죽음의 본능에 의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욕구좌절의 산물이라고 하였다.²⁷⁾ Dollard는 욕구의 좌절이 공격충동을 유발시키며 심한 욕구좌절의 경험이 강력한 공격충동을 나타내게 되며 공격적인 습관에서 개인차보다는 상황적 결정요인을 중요시하였다.²⁸⁾ 그가 말하는 좌절감은 방해 좌절감(목적의식 행동의 제지)과 결핍 좌절감(부족한 상태), 해로운 자극(noxious stimuli)의 형태로 요약되며, 모든 불쾌하고 혐오적인 사건 또는 내·외적인 자극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의미한다.²⁹⁾ 이러한 좌절감은 성냄, 분노, 노여움, 공포심 등의 느낌을 갖게 되어 공격성으로 변화하는데, 이같은 중계변수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목표가 제지되고 좌절당했을 때 혐오감을 갖고 공격성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좌절감에서 오는 공격성은 그것을 극복하거나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면 좌절감을 즉시 공격성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긍정적이고 성숙된 방법으로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생활에 중심이 되며 모든 것이 될 때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생활 속에서 겪는 불만과 좌절감이 더 이상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생활을 맡기면 좌절로 인한 분노나 억압 등의 감정이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감정을 성경적인 원리에서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³⁰⁾ 분노라는 감정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분노의 여러 가지 형태를 살펴보면, 불의와 합당치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느끼는 의분, 응징하려는 목적으로 나타나는 진노, 파괴하고 죽이고자 하여 폭발하는 격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원망 등이 있다.³¹⁾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노라는 말이 375번 나오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분노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불의, 위선, 교만에 대한 의분이었다.³²⁾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말하기를 분을 품었으면 해가 지기 전에 풀라고 권면하였으며, 잠언 14장 29절과 22장 24절, 29장 11절을 통해 노를 품지 않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인격이 덜 성숙된 상태에서 분노가 더 강렬하고 자기절제력이 없으며 인격이 높은 단계에서는 분노에 대한 자기절제와 조절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죄와 엄청난 파괴력이 될 수 있는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내어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고 진리를 깨달아 올바른 생각을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생각과 감정에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³³⁾ 즉, 분노가 일어나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용서받기 위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다.³⁴⁾ 그러므로 기독교상담적 입장에서 좌절감과 분노가 공격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고 제대로 자제하고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성경에 기초한 내·외적인 지지와 안정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사회학습 이론

사회학습 이론에서 공격성은 인간의 본능에 대한 결과라기보다

는 환경적 요인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 학자인 Bandura 는 공격성이란 성장과정에서 타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관찰된 결과가 학습되어 나타난 행동이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역할과 행동이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 공격적 행동 역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격적 인물이나 공격성을 발휘하는 인물을 모델로 삼아 관찰된 공격행동을 모방하여 습득하게 된다는 것이다.³⁵⁾ 공격적인 반응을 습득하는 것은 경험과 관찰된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곧 습관이 되어 유지된다고 보았다.³⁶⁾ 사회학습 이론에서의 공격성은 공격행동에 대한 관찰을 통해 모델을 보고 배우게 되며 강화(reinforcement)를 받을수록 공격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학습 이론은 인간의 공격성이 가정의 성장배경에서 관찰되고 모방하는 것과 위문화가 제공하는 공격성의 성공적인 모델을 통해 습득하거나 TV, 인터넷, 영화, 음악 등 대중매체를 통해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청소년들은 더욱 쉽게 자신을 폭력영화의 주인공이나 게임의 실존 인물로 착각하며 공상의 세계에 빠지게 되는 등 비교육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³⁷⁾ 이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고찰해 보면, 사회학습이론에서는 공격적인 영화, TV 등의 대중매체 또는 가정에서 공격성을 습득하게 된다고 보았다. 또 그렇게 학습된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방안 또한 공격성을 긍정적인 모델이나 강화를 습득하여 해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동적인 면에서 학습이 되어 당장 공격적인 행동은 줄어들 수 있다고 보나 내부에 내재되어 있는 근본적인 분노, 억압, 적개심 등의 감정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외적인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위해서는 내적인 감정 조절과 성숙한 대처능력이라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는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인생의 올바른 안내지침을 찾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할 것이다.³⁸⁾

3) 공격성의 유형

공격성은 다양한 관점에서 그 정의가 내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Buss와 A. Durkee의 7가지 공격성 분류와 David R. Shaffer의 적대적 공격성(hostile aggression)과 도구적 공격성(instrumental aggression)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의 대표적인 학자로 알려진 Buss와 Durkee는 공격성의 유형을 육체적 폭력행위인 폭행(assault), 험담이나 짓궂은 장난 등의 간접적 공격성(indirect aggression), 화를 내거나 모욕감을 주는 흥분성(irritability), 협동을 거절하고 반항하는 행동의 부정성(negativism), 실제로 또는 상상적인 확대를 하여 현실을 왜곡함으로써 갖는 분노로 인해 타인을 질투하고 증오하는 원한(resentment), 타인을 믿지 못하고 지나치게 의심하며 적개심을 나타내는 의심(suspicion), 언어를 사용해서 위협하며 저주하는 언어적 공격성(verbal aggression)으로 나누었다.³⁹⁾ 이와 같은 공격적 유형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도 미약하게 나타나지만 그 빈도와 강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이를 공격성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이다. Shaffer의 유형을 살펴보면, 적대적 공격성이란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피해자를 상처 입히거나 손해를 주려고 하는 공격적 행동이다. 반면 도구적 공격성은 비공격적인 결과를 의도한 것으로 남자아이가 자신의 여동생이 갖고 놀던 장난감을 갖기 위해 그것을 가로채는 것과 같은 것이다.⁴⁰⁾ 즉 어떤 대상이나 영도 등 행위자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여 의도적으로 행하는 공격성인 것이다.

4) 청소년의 공격성

인간은 일생동안 끊임없이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각 시기마다 발달과업을 이행하며 삶을 영위해 나간다. 청소년기를 의미하는 ‘adolescence’는 ‘성장하다’ ‘성숙으로 자라가다’ ‘성숙을 향해 가다’를 뜻하는 라틴어 동사인 ‘adolescere’에서 유래된 말로써 청소년기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면에서 생각과 느낌, 행동들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⁴¹⁾ 특히 이 시기는 아동과 성인기의 중간적 생의 단계로써 두 영역 사이에 주변인(marginal man)이며 발달과정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하는데, 그 기간은 가정에 따라서,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⁴²⁾ 그러나 일반적으로 가정과 학교, 사회 등 여러 가지 환경에서 새로운 갈등과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서 질풍노도와 부화뇌동의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공격성은 직접적일 수도 있고 간접적이기도 하다. 즉 무시를 당했다고 느끼거나 좌절감 등을 경험하면 학교교사에게까지 신체적인 공격을 하기도 하고 적개심으로 인해 타인과 싸움을 하거나 공공기물을 파손하며 공격적 감정을 해소시킨다.⁴³⁾ 이와 같이 공격성이 외부로 표출되어 행동화된 것이 폭력이다. 폭력은 사회적으로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며 개인적으로는 심신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특히 청소년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전세계적으로 살인과 공격, 테러, 전쟁의 모습이 여실하게 실시간 TV와 신문에서 계속적으로 제공되면서 정보를 접하는 청소년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둔감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⁴⁴⁾ 이처럼 청소년 폭력은 피해자뿐 만 아니라 당사자들도 신체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대한 피해를 겪으며 물질남용이나 자살시도 등 다른 범죄행위로 전위될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⁴⁵⁾ 청소년이 감정을 과격하게 표현하며 충동적으로 행동을 표출하는 것은 그들 내부의 불안정하고 혼란한 상황과 외부의 환경들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잘 조절하고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과 욕구불만이 누적되면서 좌절감이 쌓이지만 성숙한 대처방안의 미숙으로 인해 쉽게 공격적인 행동이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청소년이 사랑과 겸손의 기독교적 가치관을 형성하여 그들이 겪는 환경을 성숙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성경적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Ⅲ.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연구 대상

본 연구를 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은 서울을 비롯해서 군포, 과천, 성남, 안양, 의왕 등 수도권 6개 지역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들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학교 남학생 273명과 여학생 323명 그리고 고등학교 남학생 249명과 여학생 59명으로 총 904명이었다.

2. 연구 방법

연구를 위한 표집의 대상 인원은 총 1,000명이었으며, 이 중 응답상의 오류가 있고 불성실하게 대답한 설문지 96부를 제외한 총 904부가 연구를 위한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통계 프로그램 SPSS(S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11.0을 이용하여 two-way ANOVA(이원변량분석), t-test, Pearson 적률 상관관계를 통해 통계 처리하였다.

3. 연구 절차

본 검사는 2003년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 동안 본 연구자가 해당학교 담당교사와 사전 협의 하에 협조를 얻어 연구의 취지와 설문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담당교사가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수거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응답방법을 설명한 후 설문 실시와 수거하기까지 약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다.

IV. 연구의 결과 분석 및 해석

1.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 분석

신앙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으며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공격성 점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앙별로는 기독교 신앙이 공격성이

가장 낮으며 천주교, 없음, 불교, 기타의 순서로 갈수록 공격성이

신앙	성별	N	M	SD
기독교	남	185	69.7622	12.68976
	여	185	67.5514	12.70650
	전체	370	68.6568	12.72914
불교	남	58	71.2759	14.61529
	여	38	71.0526	11.65946
	전체	96	71.1875	13.45817
천주교	남	59	71.0678	15.58167
	여	54	66.1481	13.32668
	전체	113	68.7168	14.69236
없음	남	211	70.2417	11.36676
	여	101	70.2178	12.68984
	전체	312	70.2340	11.79077
기타	남	9	74.4444	14.38846
	여	4	65.2500	14.66004
	전체	13	71.6154	14.53466
합계	남	522	70.3525	12.77091
	여	382	68.3822	12.75102
	전체	904	69.1599	12.79256

높게 나타났다.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신체적 공격성, 분노, 적개심 중에서 신체적 공격성은 기독교 신앙이 없는 청소년이 기독교 신앙인 보다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의 반응분포 및 평균

<표 2> 신앙과 성별에 따른 공격성 차이 분석

	N	X	SD	t	p
기독교	370	68.6568	12.72914	-1.690	.091
비기독교	534	70.1180	12.81413		

<표 3> 기독교 신앙 유무에 따른 공격성 차이 검증

	주일 예배	출석 기간	성경	기도	봉사	세례	구원의 확신	가족의 종교
공격성 총점	-.116*	-.101	-.030	-.089	-.107*	-.059	-.140**	-.133*
신체적 공격성	-.100	-.100	-.029	-.084	-.050	-.044	-.142**	-.101
분노	-.078	-.136**	-.035	-.064	-.084	-.064	-.080	-.105*
적개심	-.108*	-.033	-.015	-.072	-.131*	-.045	-.120*	-.127*

*p<.05, **p<.01

	SS	df	MS	F	p
신앙	750.301	4	187.575	1.152	.331
성별	589.861	1	589.861	3.622	.057
신앙 * 성별	713.402	4	178.351	1.095	.358

<표 4>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 하위요인간의 상관 분석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의 하위요인간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에 출석한 기간이 오래될수록 분노는 낮으며 주일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할수록, 봉사를 할수록 전체 공격성과 적개심이 낮았다. 구원의 확신이 확실할수록 전체 공격성과 신체적 공격성, 적개심이 낮았으며 가족이 모두 기독교 신앙인일수록 전체 공격성과 분노, 적개심은 낮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학생 9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자료를 분석,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신앙에 따른 성별의 차이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공격성의 평균 점수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은 기독교 신앙의 유무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기독교 신앙요소와 공격성의 하위요인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가 요구된다. 첫째,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공격성이 높으며, 신앙별로는 기독교 신앙이 공격성이 가장 낮으며 천주교, 없음, 불교, 기타의 순서로 갈수록 공격성에서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가진 남자가 그렇지 않은 남자보다 공격성이 훨씬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을 통해 공격성을 올바르게 해소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신체적 공격성에서 기독교인보다 비기독교인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적 공격성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성의 행동화로 타인에게 상해를 주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이 공격성을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대처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셋째, 교회 출석기간, 주일예배, 봉사, 구원의 확신,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전인적인 기독교 신앙을 믿고 확신할 수 있도록 교회와 가정에서 꾸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신앙으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기독교 신앙이 다른 신앙보다 공격성이 낮으며 기독교 신앙의 유무가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표출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독교 신앙요소 중에서 구원의 확신과 가족의 기독교적 배경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이 올바른 기독교 신앙관을 확립하고 그에 따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게 되며 가정에서 기독교 신앙적 환경이 청소년의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증명한 것이다.

* 후 주 *

- 1) 크리스찬 신문, 2002. 3. 25. 4면.
- 2) Gerald R. Adams, Thomas Gullotta, *Adolescent Life Experiences* (Monterey, CA: Brooks/Cole, 1983), 290-291.
- 3) 조영길, 「성경을 통한 청소년 상담」 (서울: 성광문화사, 1999), 67.
- 4)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실제」 (안양: 한국복음문서간행회, 2001), 15-16.
- 5) 전요섭, 「기독교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좋은나무, 2001), 10-11.
- 6) 김정희 외, 「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1994), 194.
- 7) Kelvin L. Seifert, Robert J. Hoffnung,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New York: Houghton Mifflin, 2000), 459.
- 8) James W. Fowler, *Stages of Faith*, 이재은 역, 「신앙의 단계들」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6), 215.
- 9) Arnd Stein, *Wenn Kinder Aggressiv Sind*, 조은혜 역, 「공격적인 우리 아이 어떻게 키울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1), 73.
- 10) 양돈규, 「심리학소사전」 (서울: 학지사, 2003), 42.
- 11) 이광성, “청소년의 전자오락실 이용과 공격성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제26권(1998, 6): 101.
- 12) 박문옥,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인지-행동수정의 교육적 활

- 용" 「한세대학교 교수논총」 제13권(1998, 12): 86.
- 13) 박윤선, "창세기" 「성경주석」 (서울: 영음사, 1994), 116-119.
- 14) June Hunt, *Biblical Counseling Keys*, 최복순 역, 「성경적 상담의 열쇠」 (서울: 프리셋트, 2001), 58-59.
- 15) Lawrence Crabb, *Basic Principles of Biblical Counseling*, 전요섭 역, 「성경적 상담학 개론」 (서울: 아가페문화사, 1995), 33.
- 16) 최순영, 김수정 편, 「인간의 사회적·성격적 발달」 (서울: 학지사, 1995), 204.
- 17) John Carter & Bruce Narramore, *The Integration of Psychology and Theology*, 전요섭 역, 「신학과 심리학의 통합과 갈등」 (서울: 하늘사다리, 1997), 31.
- 18) 전요섭, 「신학에서 본 심리학」 (서울: 잠언, 1999), 174-175.
- 19) Charles R. Solomon, *Handbook to Happiness*, 김우생 역, 「영적 치유의 핵심」 (서울: 솔로몬, 2003), 14.
- 20) Lawrence Crabb, *Effective Biblical Counseling*, 정정숙 역, 「성경적 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2), 72.
- 21) Martin and Deidre Bobgan, *How to Counsel from Scripture* (Chicago: Moody, 1985), 174.
- 22) Paul Tournier, *The Violence Within*, 권명달 역, 「폭력과 투쟁의 심리학」 (서울: 보이시스, 1987), 19.
- 23) 배진수, "아동의 공격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 분석" 「진주교육대학논문집」 제29집(1985, 12): 151.
- 24) 전요섭, 223~225.
- 25) William Backus & Marie Chapian, *Telling Yourself the Truth*, 김연출 역, 「편견을 깨뜨리는 내적 치유」 (서울: 예찬사, 1995), 69.
- 26) Backus & Chapian, 73.
- 27) 김청자, "공격성의 원인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 「상명여대 논문집」 제17집(1986, 3): 23.
- 28) David G. Perry, Kay Bussey, *Social Development*, 최순영 역, 「인간의 사회적 발달」 (서울: 성원사, 1989), 244.
- 29) 박덕규, 35-40.
- 30) Jay E. Adams, *Competent to Counsel*, 정정숙 역, 「목회상담학」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2001), 276-277.
- 31) Hunt, 49.
- 32) Mark P. Cosgrove, *Counseling for Anger*, 김만풍 역, 「분노와 적대감」 (서울: 두란노, 1996), 49-54.
- 33) Backus & Chapian, 80-81.
- 34) Kenneth Stafford, *Handbook for Helping Others*, 강승문 역, 「기독교 상담 지침서」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113.
- 35) 고미경, "아동과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6집(1998, 10): 59.
- 36) David R. Shaffer,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Belmont, CA: Wadsworth, 2000), 303.

- 37) 박덕규, 73.
- 38) Paul D. Meier, Frank B. Minirth, Frank B. Wichern, *Introduction to Psychology and Counseling* (Grand Rapids: Baker, 1989), 124.
- 39) 박문옥, 89.
- 40) David R. Shaffer, *Developmental Psychology* (Belmont, CA: Wadsworth, 1988), 511.
- 41) Camille B. Wortman, Elizabeth F. Loftus, *Psychology* (New York: Knopf, 1988), 252.
- 42) Glenn M. Blair, R. S. Jones, *Psychology of Adolescence for Teachers*, 김인식 역, 「청소년 심리학」 (서울: 배영사, 1992), 11.
- 43) Blair, Jones, 31.
- 44) F. Philip Rice,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 and Culture*, 정영숙 외 역, 「청소년 심리학」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1), 20.
- 45) 심응철, “청소년의 충동성 및 공격성과 폭력행동의 상관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제12권(1999, 2): 25.

